

# 대형물 없는 '95베스트셀러의 우울한 잔치

판매부수는 예년의 절반 이하... 기획부재 등의 요인과 맞물려

지난해 연말 서울 시내 교보·영풍·종로·을지 등 주요서점들과 부산의 영광도서, 광주의 일신문고 등 대도시의 대형서점에서 집계, 발표한 95년 베스트셀러 목록은 한마디로 불황으로 시달린 지난해 우리 출판계의 부진한 성적표였다.

문학이나 인문 등 종래에는 베스트셀러 목록의 주종을 이루던 책들이 약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비소설과 실용서가 장악하다시피한 95년 베스트셀러 목록의 수위(首位)는 컴퓨터와 외국어분야의 책이 차지했다. 교보문고의 경우 1.2.3위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김영사) 《컴퓨터 길라잡이》(정보문화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디자인하우스) 등 실용부문에 모두 내주는 사상초유의 현상이 벌어졌고, 영풍문고의 경우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가 1위, 《컴퓨터 길라잡이》가 2위를 차지했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의 정점을 지키던 문학서를 물리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한 책들은 모두 금년에 나온 책이 아니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은 이미 지난해부터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책이었고, 독특한 기억법을 영어학습에 적용한 한호림의 《꼬리에...》 역시 출간 2년이 지나도록 꾸준한 인기를 모은 책이다.

## 유명인들의 자전예세이 바람

실용서의 부상과 함께 예세이도 여러 종이 베스트목록에 올라 가장 크게 약진한 부문으로 꼽힌다. 국회의원 이명박의 《신화는 없다》(김영사)가 정치바람을 타고 을지문고의 1위, 종로서적의 3위를 차지했는가 하면 홍세화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창작과비평사), MC 허수경의 《미소 한잔 눈물 두 스푼》(세기), 정신과 의사 김정일의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푸른숲) 등이 순위를 다투고 있고, 부산 영광도서에서는 심수봉의 자전예세이 《사랑밖엔 난 몰라》(문예당)가, 광주 일신문고에서는 건축가 김진애의 《나의 테마는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김영사)가 각각 10위에 올랐다.

지난해 인기를 끈 예세이들은 대부분이 특이한 직업이나 인생경험을 지녔거나 유명인들의 자전적인 내용을 담은 것들이어서 우리 독자들의 독서경향이나 선호도를 가늠

## 문학이나 인문 등 종래 주종을

이루던 베스트셀러 목록이 올해에는

약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비소설과 실용서들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컴퓨터·외국어 교재의

인기와 함께 특이한 직업이나

인생경험을 지닌 유명인의 자전

에세이들도 독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95년 서점가의 사정은 대형베스트

셀러가 사라져 더욱 힘겨운 한해였다.

하게 해준다. 이러한 예세이들의 약진에 밀려 진정한 의미의 수필, 즉 문예성 수필은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는데, 76년 초판을 낸 이후 현재까지 초판 16쇄, 2판 45쇄를 발행한 법정 스님의 《무소유》(교보문고 수필부문 10위)는 20년 묵은 스테디셀러로 그 빛을 발하는 책이다. 한편, 무녀 심진송의 자전 에세이 《신이 선택한 여자》(백송)는 어수선한 사회상황과 맞물려 하반기에 들어 크게 인기를 모았고, 함승희 변호사의 《성역은 없다》(문예당)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 시류에 민감한 독서 행태를 그대로 반영해주었다.

문학부문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몇종의 소설이 순위를 바꾸어가며 각 서점들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종로서적 종합 베스트의 1위, 교보문고 소설분야 1위를 차지한 공지영의 《고등어》(웅진출판)와 영화화되어 화제를 모았던 제임스 윌러의 소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시공사)가 많이 팔린 소설로 꼽힌다. 양귀자의 《천년의 사랑》(살림)은 7월에 출간, 하반기를 강타한 소설로 당분간 여세를 몰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는 베스트 10위 밖으로 밀려난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해냄)이 부산 영광도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해 관심을 끈다. 이밖에 파트릭 쥐스킨트의 《좁은 이야기》(열린책들)도 92년에 출간된 책으로 꾸준한 인기를 모아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지난해 베스트셀러는 대형물이 없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인문분야의 부진 또한 95년 베스트 목록의 특징으로 꼽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베스트 10위 안에 든 인문분야의 책으로는 94년에 큰 인기를 모아 무수한 아류성 책을 낳기도 했던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창작과비평)가 유일한 것으로 그것도 교보문고의 10위, 광주 일신문고의 5위에 올랐을 뿐이다. 이념서적이 퇴진한 후 쉽고 재미있게 쓴 인문교양서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던 예년에 비해 95년에는 이렇다 할 책이 없었던 것이 인문분야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독일 망명학자 송두율 교수의 《역사는 끝났는가》(당대)가 관심있는 독자들의 눈길을 모았고, 국내 기획물을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미국 문화인류학자인 마빈 해리스의 《작은 인간》(민음사), 《식인과 제왕》(한길사), 《문화의 수수께끼》(한길사) 등 3권의 책이 동시에 인기를 끌어 '마빈 해리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 《이야기 한국사》(청아) 《상식밖의 세계사》(새길) 등 쉽게 읽을 수 있는 역사서가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팔릴 만한 책이 없었던 인문분야

거침없는 문체로 한국 정치판과 언론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비판한 강준만 교수의 《김대중 죽이기》(개마고원)는 사회부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책이다. 이 책은 특히 광주 일신문고에서 종합 1위를 차지,

이 지역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중앙일보 이광훈 기자의 《전원주택 나도 주인이 될 수 있다》(살림), 이면우 교수의 《신사고 이론20》(삶과꿈) 등이 독자들이 많이 찾은 사회분야의 책이다.

베스트셀러 목록으로 살펴본 95년은, 많이 팔리지 않았고 크게 팔릴 만한 책도 없었던 해로 읽힌다. 목록에 올라 있는 책들의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부터 독자들의 인기를 누리던 책이거나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굳혀가던 책이었으며, 실제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책의 판매부수가 지난해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했음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교보문고의 집계에 따르면 95년 1위를 차지한 《성공하는...》의 경우 판매부수가 7,449부로 이는 93년의 《반값다 논리아》가 16,097부, 94년의 《일본은 없다》가 11,470부가 판매된 것에 비하면 《반값다 논리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형 베스트셀러가 사라지고 시장에 한 흐름을 형성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큰 책이 나와 주지 않아 더 힘겨웠던 95년 서점가의 사정은 영상매체 보급의 확산, 국민독서량의 절대 감소, 도서대여점의 확산 외에도 광고나 저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출판행태와 기획의 부재 등 출판계 불황의 요인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서점들이 내리는 진단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먹을 것도 없고 요란치도 못한" 책들의 우울한 잔치는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들의 전망이다. — 박남정 기자